

연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,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.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, 최고 기온은 영하 9도로 아주 춥겠습니다. 앞친 데 덮친 격으로, 어제 내린 눈이 퐁퐁 얼어붙어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길이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도로의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출근하실 때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수도관 등이 얼어서 터지는 동파 사고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